



'The Creation of Female Myth'

# 일본서 첫 개인전... '새로운 여성 창조' 반응 이끌까



박소빈 작가

연필 드로잉을 통해 '용과 여인'이라는 주제로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광주출생 박소빈 작가가 창작활동 이후 처음으로 일본 도쿄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 전시를 열려고 했으나 목포대박물관 로비에 15m에 달하는 '새로운 신화창조'가 영구 설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전시 일정에 신경 쓸 겨를 없었다는 귀띔이다.

인포메이션이랑 서로 연결을 해서 자료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동안 활동했던 여러 가지 내역들을 이메일로 전송, 미팅을 잡았는데 목포대박물관 작품 영구 설치건으로 조금 미뤄지다가 확정된 것이다.

작가에게 2024년은 개인적으로 행운의 해로 기록된다. 이 행운의 해가 결국 도쿄 전시로 연결됐다는 시각이다.

지난 2024년에 그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용의 신화 무한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중국 북경 연고 '용과 여인' 작가 박소빈 rk 컨템포러리 갤러리서 대작 등 선보여 뉴욕·유럽 이어 도쿄 9월 전시 성사 결실

한 개인전 (1.10~3.24 제5·6전시실)을 연 데 이어 베니스 초대전 (4.16~11.24 베네치아 스파지오 SV 산비탈아트센터) 등 굵직한 전시가 잇따라 열렸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선보인 '용의 부활-무등의 신화' 등의 작품이 그대로 베니스로 넘어와 현지 관람객들에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다 베니스비엔날레 전시 기간에 맞춰 '마당-우리가 되는 곳'이라는 타이틀로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 베니스 특별전 (4.16~11.24 베니스 일 지아르디노 비안코 아트 스페이스)까지 진행되던 무렵이어서 박 작가의 전시는 국내 화가 중 현지

에서 독보적 입지를 뽐내는 계기가 됐다. 이때 당시 rk 컨템포러리(Root k Contemporary) 갤러리 관계자가 베니스 초대전 때 "The Creation of Female Myth" 등을 관람한 뒤 전시제안이 이뤄진 것이 계기가 됐다.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 관계자가 좋은 작가, 좋은 작품을 찾아나서는 관계가 있는데 박 작가가 눈에 띈 경우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rk 컨템포러리 갤러리는 주로 탐금 예술가들과 커넥션이 형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가나나 학교재 등에 비견될 만큼 권위있는 전시 공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이번 박 작가의 전

시는 상업적 관점보다 연필 작업에 매료되는 등의 오리지널리티가 인정받아 성사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번 전시가 보통의 다른 전시와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박 작가는 아찔한 북경을 중심으로 해외를 돌며 활동하고 있지만 2024년은 정말 행운의 해였고, 광주시립미술관 때 선보여 감화를 안겨줬던 '무등의 신화'에서 보듯 코로나19 이후 고향을 베이스로 해 작업을 하는 전기를 마련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경에서의 작업 역시 고향 광주를 베이스로 한 한 번도 놓아본 적 없다는 점 또한 잊지 않았다.

이번 전시가 뉴욕이나 유럽 전시에 이어 일본 전시까지 결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작가는 2011년 북경 진출 이후 15년째를 맞았지만 광주의 사유를 잊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단채전들보다 개인전에 주력해왔다. 자신의 회화

세계를 더 깊이있게 전착하기 위한 작가적 고민이 있어서다.

전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30일까지 도쿄 가구라자카 소재 핫플에 자리한 rk 컨템포러리 갤러리. 출품작은 '새로운 여성 신화 창조' 시리즈를 위주로 3피스 17m 대작을 포함해 100호 2~3점, 50~60호 4~5점, 연필과 영상 등 아카이브가 선보인다. 박 작가의 작품은 지하 1층 전시장에서 일반 현지 관람객들을 만난다. 17m 대작은 설치가 어렵기에 메인 부분만 선보일 계획이다. 2011년 '새로운 여성 창조'와 2012년 '새로운 신화창조는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작품 1, 2처럼 작업했지만 이번 도쿄에서는 2011년 작업한 작품이 출품된다.

박 작가는 현재 중국 북경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 중이며, 내용과 쪽 더드라마예술 학교 객좌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게임처럼 즐기는 오케스트라...어린이 맞춤 클래식

시향, 내달 1~3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서 '참여형 공연' 음악 접근성 높이는 무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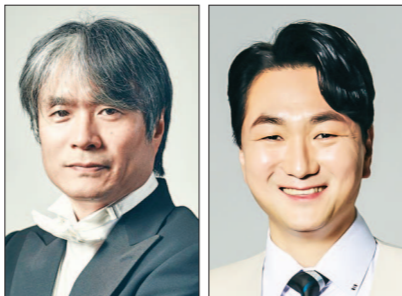
광주시립교향악단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한 참여형 클래식 공연을 펼친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이하광주시향)은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광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2026 GSO 기획 키즈콘서트 '오케스트라 게임'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오케스트라를 하나의 '게임'으로 풀어내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클래식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지휘봉은 김영언이 잡고, 내

레이션은 내용준이 함께하며 관객과의 소통을 더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한 감상이 아닌, 함께 웃고 놀고 느끼는 참여형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내레이션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클래식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확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무대는 '오케스트라를 알아가는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벤저민 브리튼의 '관현악 입문 작품'을



부지휘자 김영언 내레이션 내용준

트 아래 관현악기와 타악기가 종종처럼 등장해 리듬 및 템포, 셈여림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객들은 무대 위 연주자와 함께 호흡하며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

공연은 60분 동안 진행되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으로 클래식 입문자도 부담없이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공연은 5월 1일 오후 7시30분, 2일 오전 11시·오후 3시, 3일 일요일 오후 3시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7세 이상 (2019년 포함 이전 출생)부터 관람 가능하고,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예스24에서 할 수 있다. 입장료는 전석 1만원. 정채경 기자 view2018@

## 고흥 의병 정신 규명...고문서 국역 사업 착수

한국학호남진흥원, '봉헌만록'·'화포유고' 번역 민간기록 복원...지역 역사자원 발굴·활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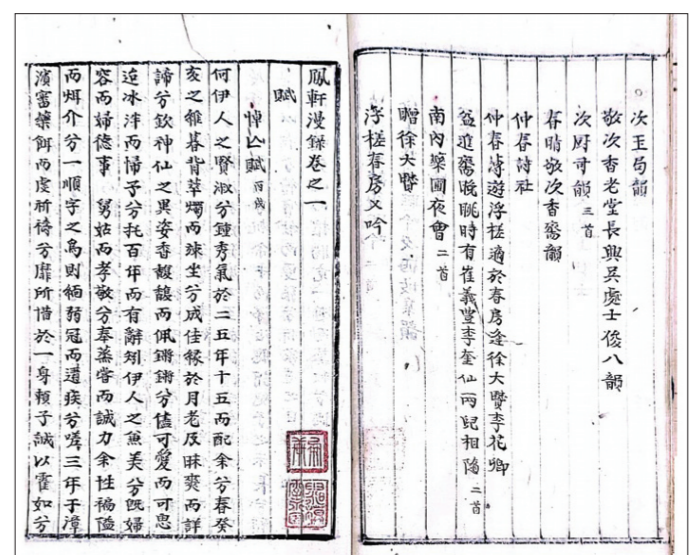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전남도와 함께 고문서 국역 사업을 통해 지역 역사자원 발굴에 나선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홍영기)은 최근 고흥 의병 정신의 사상적 뿌리를 규명하기 위한 고문서 국역 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창모의 문집 '봉헌만록'과 그의 아들 신석구의 문집 '화포유고'를 대상으로 원문 일러주와 번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단순한 고전 번역을 넘어 지역 항일 의병 투쟁의 사상적 기반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의향' 고흥은 오랜 시간 시대를 고민하고 실천해 온 선비들과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항일 투쟁에 나선 의병들의 역사가 축적된 지역이다. '봉헌만록'의 저자인 신창모(1846~1917)는 흥양현 출신으로 당대 문장가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인물로, 전라도 관찰사 이도재가 그의 문장을 높이 평가해 관직에 발탁하려 했을 만큼 학문적 깊이가 뛰어났다.

그의 대표 글인 '도망부'는 사별한 아내를 향한 애절한 정서를 담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신창모는 스스로 자신의 글을 "농촌의 질박한 소리와 같다"고 낮췄지만, 실제로는 공무 중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학문에 몰두한 지식인이었다. 당대 인물 신기선은 그를 두고 "봉황과 같은 인물"이라 평가하며 '봉헌'이라는 호를 붙여주기도 했다.



'봉헌만록' 도망부

이러한 정신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졌다. 둘째 아들 신석구는 '화포유고'를 남기며 학문적 전통을 계승했고, 넷째 아들 신성구는 1909년 팔영산 일대에서 120여 명 규모의 의병부대를 이끌며 항일 투쟁에 나섰다. 신성구 부대가 주둔했던 만경암 일대는 최근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역사적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국역 사업은 신창모가 지향한 '도를 따르고 본심을 잃지 않는 삶'이 학문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의 사상과 문화이 지역 의병운동으로 확장된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홍영기 원장은 "전남 곳곳에 남아 있는 민간 기록 유산을 현대어로 번역해 공유함으로써 지역민의 역사 인식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대한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전라도 민속 춤판의 흥·생동감 '한 무대에' 내달 2일 오후 3시 남도국악원 진악당서 김묘선 '승무'·서한우 '설장구춤' 등 선보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5월 2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사)남도민속놀이문화예술원의 '춤 부르는 장단 in 전라도'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라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명무들과 함께 장단과 춤의 즉흥적인 교감을 무대에 올린다. 단순히 춤을 재연하는 것을 넘어 음악과 춤의 교감함으로써 옛 춤판의 흥과 생동감을 느껴볼 수 있다.

무대를 준비할 (사)남도민속놀이문화예술원은 남도 지역의 민속예술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9년 설립됐다. 진도지역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이를 토대로 전통의 대중화에 앞장서 남도의 민속예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승무 전승교육사인 김묘선의 '승무'로 시작을 알린다. 서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5월 2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사)남도민속놀이문화예술원의 '춤 부르는 장단 in 전라도'를 선보인다.

한우 버구춤 보존회 이사장인 서한우의 '설장구춤'과 (사)우봉이매방춤서술전수관 관장 최창덕의 '사풍정감', 조갑녀 민살풀이춤 보존회 대표 정명희의 '조갑녀 민살풀이춤', 전남무형유산 진도북놀이 예능보유자 이희춘의 '진도북놀이' 등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마지막은 무용수

와 연주자가 한 데 어울려 춤판을 펼치는 '장단이 부르고, 춤이 답하다'로 장식한다.

공연 희망자는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장등문화센터(고군면 오일시)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연은 무료. 문의 061-540-4042.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